

# 간호대상자의 사회화과정에 대한 이해 —정신분석학적, 형태주의적, 인지학적 및 상징적상호작용적 관점을 통하여 본 사회화

최 영 희

(이대 간호대학 교수)

## I. 서 론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간호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위에 대한 이해는 전인적 간호에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 태어날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계속적인 인간의 사회화과정에 대한 지식은 간호대상자 이해에 기초가 될 것이다.

인간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후천적인 사회적 영향을 중요시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사회의 한 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사회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Giddings는 이 개념을 쓸 때 “사회화는 인간의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Ross는 “개인의 정서나 욕구를 집단적 필요에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여 사회화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개인중심적 사고에서 사회중심적사고가 강해지면서 한 개인은 어쩔 수 없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거대한 영향을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과 인간의 올바른 이해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해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관점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는 르네상스시대의 낙관주의가 사라지고 사회결정론적 관점이 굳어지는 때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결정론적 관점에 다시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으며 인간의 사회화의 산물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라는 견해가 대두되어 사회화 연구에 새로운 반성이 싹트고 있기도 하다.

사회화가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강조하는 정도의 차이와 강조되고 있는 사회화의 측면을 따라 문화인류학, 인성심리학 및 사회학분야에서의 사회화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면 1) 문화 동질화 과정으로서의 사회화는 인간이 낳게 가지고 있는 백지상태가 특정문화에 젖어들어 동질화(enculturation)되어가는 과정을 사회화란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다. Brunner와 Kohlberg는 사회화는 그들의 인지적 능력의 발달과 병행하는 것으로 사회화를 설명하고 있다. 2) 충동의 통제능력 형성과정으로서의 사회화는 인간의 superego의 형성과정을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하는 Freud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역할훈련 과정으로서의 사회화는 “사회가 여러 가지의 역할들의 유기적인 조직체인데 개인들의 사회적 존재의의는 이러한 조직체들 속에서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화가 학문의 분야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지만 인간에 대한 후천적인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중요하고 사회화의 연구가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폭넓

은 이해를 위해 정신분석적, 형태주의적 인지학적 및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의 사회화를 알아보는 것은 생의주기상의 다양한 상호대상자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II. 본 론

### —사회화에 관한 이론적 접근—

현대 사회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4가지 관점에서 사회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신분석적 접근

의학및간호학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프로이드의 이론은 인간의 인격형성 과정에 관한 이론이므로 사회화란 말은 프로이드의 이론체계에 서는 적합한 개념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즉 사회화라는 말은 개인이 자기가 태어난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강조한 개념인데 반하여,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인격형성과정은 개인의 본능이 문화속의 규범적 제약과의 갈등속에서 원만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이지 결코 문화적 규범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하였고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내재적 기능에 대한 가정 위에서 성격형성의 각단계를 따라 인간의 가능성이 성숙되는 것이라는 결과 또 인간의 동기에 관해서는 항상성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이드의 성본능 발달설은 인간의 여러가지 감각과 행동은 자기 다른 시기에 성숙하게 되며 또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노출된다고 보는데 이 관점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단계마다에서 특정한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socializing agent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있을 때 생성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동기를 어떤 자극이 유발한 homeostatic imbalance를 다시 균형상태로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기는 삶의 추진력은 되지만 그 자체가 성격형성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추진력은 후천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사회화

의 socializing agent에 의한 간섭이 제시하는 방향과 함께 작용하여 비트소 발달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사회화과정을 인격형성과정 과 구별하지 않는다면 프로이드의 이론은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사회화 과정의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되는 관점일 수 있다.

#### 2. 행태주의적 접근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영향을 받은 Miller, Dollard와 같은 자유주의적 행태주의자들은 인간의 단순한 반응으로서의 행동 이상의 것 즉 인간자체의 유기체적 속성까지도 관心の 대상으로 삼게하였으며 사회심리학에서 사회화 이론을 엄격한 과학적 방법으로 다져서 발전시켜 가고 있다. Albert Bandura의 이론을 주조하여 행태주의적 관점의 사회화 이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Bandura는 사회화를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의 습득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언어를 포함한 기술의 습득과정은 전통적 행태주의자들이 고집하는 단순한 자극과 반응의 모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나서 동일시 학습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andura는 감정적 자극이 모델의 행위를 습득하는데 필요하기는 해도 충분적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즉 관찰 학습에는 자극이라고 하는 단순한 외적요인외에도 인간내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동시에 구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중에는 attentional process, retention process, motoric reproduction process 같은 복잡한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발전되어 온 현대 학습이론은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외부의 사회문화적 요인보다는 사회화가 되는 당사자의 학습기제라고 하는 인간내부적 요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자들의 사회화에 대한 피상적인 이론을 제시한데 반해 행태학자들은 이론을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다져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인지학적 접근

인지학파의 사회화에 대한 중심적인 관심도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의 cognitive representation 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이다. 개인의 인지적 조상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지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적지만 피아제와 제네라 학파의 동료들은 아이의 후천적인 경험이 그의 이해와 성장과정에 영향을 끼치지만 성장에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취학전의 아이들의 비조직 비조직적인 사고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갈등에 의하여 촉발되는 사고과정에 있어서의 자발적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지적 조상과정에 문화적 요인이 후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음을 여러 연구에서 엿볼 수 있다.

사회생활속에서의 대인관계를 파악하는데 문화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바 있지만 특히 Baldwin 의 아이들의 친절에 대한 관념에 대한 시사는 친절의 관념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문화적 요인이 개인의 대인관계 파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지학파에서는 어떤 문화권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그 문화권의 단순심리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심리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단순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자녀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 아이들의 의도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반면 그들의 의도와 행위 사이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정정화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어서 아이들의 행위는 과분히 충동적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동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른은 아이에 대해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 이와같이 아이에 대

한 어른의 생각은 아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특정문화권에서 지배적인 단순심리학은 사회화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판절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4.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Mead는 사회화 이론은 바로 자아형성과정을 이론적 주축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Cottrel은 사회화에 관하여 논할 때 role-taking이 자아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자기자신에 대한 남들의 반응을 접하게되면 자기자신의 행위를 남의 입장에 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형성하게 되는데 아이가 남의 입장에 서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 생각은 Cooley의 looking-glass self라는 개념속에도 잘 담겨져 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자신의 반응체계 속에서 그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자아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는 역할담당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의식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아울러 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란 하나의 과정적 현상이라는 것이며 상호작용론에서 강조되는 점이다. 즉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란 어디까지나 그와의 남과의 관계(self-other system)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남과의 관계란 상호작용을 의미하거 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결국은 의미있는 상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타인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은 택해볼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곧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상징을 공유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이며 이 의미체계의 습득과정은 곧 일반화된 generalized other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과정 즉 자아속의 Me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삶의 특정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 평생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 Ⅲ. 결 론

정신분석학적, 행태주의적, 인지학적 및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사회화에 관한 이론적 접근의 특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행태주의학파에서는 인간의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학습과정을, 인지학파에서는 사람이 자기환경을 파악하는 바탕이 되는 인지적 조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행태주의 학파의 학습이론은 사회화의 내용보다는 과정을 특히 관심있게 보

고 있다. 사회화의 개념이 각기 이렇게 규정되는 네가지 관점에 대한 논의는 사회화 과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이론적 틀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전병재 : 사회심리학, 경문사, 1981.
2. Bruner, J.S., "The Course of Cognitive, Growth," American Psychologist, 1964, Vol. 19, pp.1~15.
3. Giddings", F.P., The theory socializ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1897.
4. Goshin, Davis A. & Foundation, Russel, S.(edrt-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 Research,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Chicago, 1968.